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annual report 200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7사업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07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든 시간입니다

차례

감사의 글	03
2007사업지원내역	04
방북자 및 물자지원현황	05
2007 활동일지	06
대북지원사업	10
농촌현대화사업	10
축산협력사업	12
제약공장지원사업	14
병원현대화사업	16
어린이급식사업	18
IT교육사업	20
긴급구호사업	21
정책연구사업	22
고려인지원사업	24
법률지원사업	26
2007 결산보고	27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8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9
함께하는 사람	30
후원안내	31



감사의 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되지 어느덧 12년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6년 창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과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 및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6년 10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인도 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 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사업보고서는 '다짐'의 내용을 처음으로 시행한 첫 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쪽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첫 번째 종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지원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2년째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에는 전라북도과 공동으로 추진한 양돈장이 완공돼 지난 2007년 10월 23일 101명의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과 구강수술장이 신축 및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에는 82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으로 북에서 확실한 기반을 확보한 정성의학종합센터에 대한 지원도 품질관리실 설치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8년 상반기 내에 품질관리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대북 지원사업 이외에도 평화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사업과 대외활동도 두드러졌습니다. 산하 정책기구인 평화나눔센터에서는 17차례에 걸쳐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07년 7월 개최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특별협의지위 NGO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명실공히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된 셈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한반도를 뛰어넘어 국제 사회에 우리 민족의 뜻과 노력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 8월에는 특히 북한의 수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많은 분들의 정성과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8월부터 11월 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8억원 상당의 수재 물자를 북에 전달했습니다. 이외 평안북도 신의주와 룡천군 지역의 육아원 및 애육원 등에 정기적으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였고,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지역의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대북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큰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우선 지난 12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무총장으로 큰 역할을 해온 이용선 총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기간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강영식 국장이 신임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주변의 정세가 변하고 사람의 자리는 바뀌지만,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노력은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상 임 대 표 강문규

공 동 대 표 고희선, 김성훈, 김영수, 김흥국, 박경서, 박경조, 박남수, 박성민, 박원철, 박준영, 손충열, 안성모, 영담, 유기덕, 윤덕홍, 윤여두, 윤장현, 이상준, 이영동, 이일영, 최대석, 최완규, 한지현

운영 위원장 이용선

2007 사업지역

대북지원 사업지역

농촌현대화사업

- ①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 당곡리협동농장
- ② 개성시 개풍군 : 개풍 양묘장

축산협력사업

- ③ 평안남도 남포시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제약공장지원사업

- ④ 평양시 낙랑구역 : 정성의학종합센터

병원현대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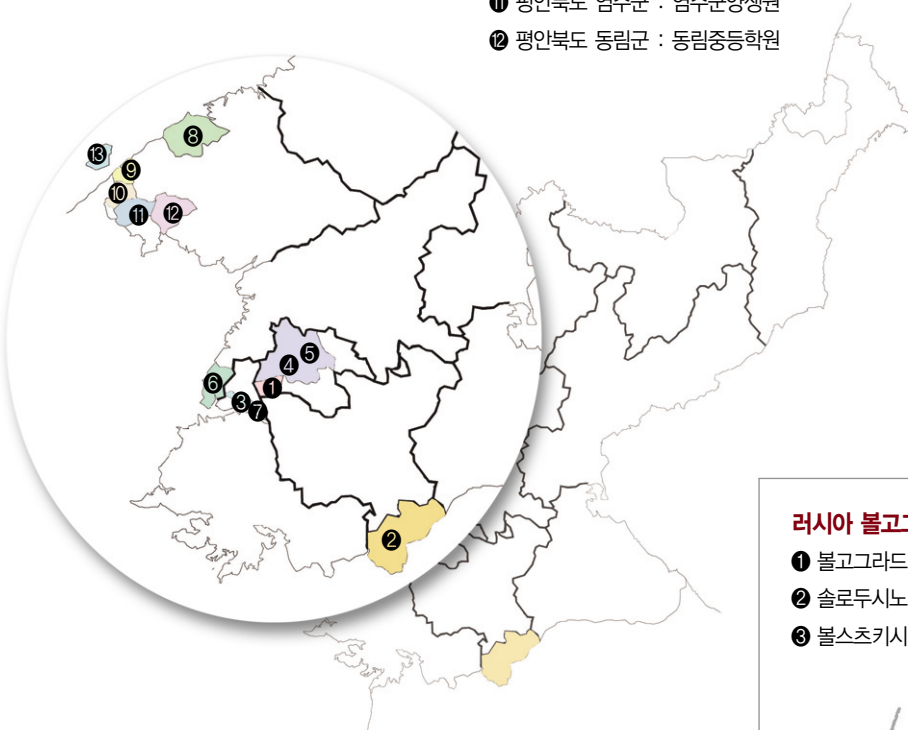
- ⑤ 평양시 동대원구역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 ⑥ 평안남도 온천군 : 온천군병원
- ⑦ 평안남도 남포시 : 남포산원

어린이급식사업

- ⑧ 평안북도 삭주군 : 삭주군이부모학원
- ⑨ 평안북도 신의주 : 신의주육아원·애육원
- ⑩ 평안북도 룡천군 : 룡천군육아원
- ⑪ 평안북도 염주군 : 염주군양생원
- ⑫ 평안북도 동림군 : 동림중등학교원

IT교육사업

- ⑬ 중국 단둥 : 하나소프트교육원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 사업지역

- ① 볼고그라드 : 한글학교, 고려인축제
- ② 솔로두시노 : 시설영농단지, 한글학교
- ③ 볼스츠키시 : 한글학교

● 모스크바





방북자 및 물자지원현황

방북자 현황

연 도	방 문 횟 수	연 인 원	방문 지역 (회수/명)					
			평 양	남 포	신의주	개 성	금강산	기타 지역
1998	2회	4명	1회/2명		1회/2명			
1999	8회	29명	2회/13명	4회/10명	2회/6명			
2000	19회	79명	8회/48명	8회/20명	3회/11명			
2001	20회	106명	14회/85명	5회/17명	1회/4명			
2002	24회	212명	20회/203명	3회/7명				1회/2명(자경도만포)
2003	21회	363명	19회/356명	2회/7명				
2004	26회	168명	18회/136명	4회/15명	1회/7명	1회/3명	2회/7명	
2005	64회	972명	37회/811명	6회/13명	4회/18명	17회/130명		
2006	72회	704명	60회/647명		2회/2명	8회/48명	2회/7명	
2007	65회	2,962명	38회/471명		3회/3명	24회/2,488명		
합 계	321회	5,599명	197회/2,772명	32회/89명	17회/53명	50회/2,669명	4회/14명	1회/2명

물자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	계
1996	171,500 밀가루	-	-	-	171,500
1997	4,612,180 옥수수, 감자, 의류, 생필품	-	492,000 요소비료	-	5,104,180
1998	330,000 옥수수	-	420,000 요소비료	-	750,000
1999	2,290,080 옥수수, 계란, 감귤, 의류, 학용품, 밀가루	376,500 의약품	135,000 젖염소	-	2,801,580
2000	6,382,900 계란, 감귤, 미역, 의류, 학용품	202,190 의료기기	1,871,270 농약, 비료, 씨감자, 젖염소, 착유시설 등	-	8,456,360
2001	5,344,390 미역, 의류, 밀가루, 토마토, 양파 등	556,000 완제의약품, 약품원료	2,823,230 농기계, 종자, 비료, 손수레, 젖염소 등	303,400 밀가루, 양념스프	9,027,020
2002	2,018,750 밀가루, 내복, 쌀 등	1,090,530 정제생산설비, 의약품 등	3,928,850 수리공장 자재, 농기계 수리부품, 젖염소 등	165,710 밀가루, 양념스프	7,203,840
2003	2,891,390 종이, 설탕, 솜, 비닐, 김, 이불	1,952,370 건설자재, 의료장비, 의약품	1,209,710 건설자재, 농기구, 공장설비, 비료, 농약	1,236,410 분유, 밀가루	7,289,880
2004	1,007,250 김, 교과서용지, TV, 페인트	4,726,480 수액설비, 의료장비, 의약품	2,074,080 건설자재, 농기구, 공장설비, 비료, 농약	131,810 밀가루, 냉동설비 등	7,939,620
2005	1,640,380 식품공장, 의류 등	1,397,730 수액설비, 의료장비, 의약품	3,390,790 건설자재, 농기구, 공장설비, 농기계 등	10,476 분유, 밀가루, 의류 등	6,439,376
2006	828,920 식품공장, 의류 및 라면 등 수해지원 물자	1,499,140 건설자재, 제약설비, 의약품, 수액세트 등	5,264,130 농기계, 온실자재, 비료, 농약 등	5,180 분유, 밀가루 등	7,597,370
2007	3,076,948 라면, 콩가루, 의류, 의약품, 페인트 등	1,090,922 건설자재, 의료설비, 의약품 등	3,068,778 농약, 비료, 농기계, 건설자재	44,096 분유, 밀가루, 의류	7,280,558
계	30,594,688	12,891,862	24,677,838	1,897,082	70,061,470

2007 활동일지

1월 활동

- 0112 사무처 워크숍
- 0119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교압 케ابل 지원
- 0122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심사통과
- 0123 <북민협> 정기총회에서 상임운영위원단체로 선임
- 0124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의료설비 지원

2월 활동

- 0205 평양 강남군 당곡리, 장교리 협동농장 벼농사 시범생산 쌀 반입 (3톤)
- 0207 평양 강남군 장교리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7명)
- 0210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4명)
- 0210 평안북도 염주군양생원(장애인시설)과 신의주육아원·애육원(고아원)에 급식
자재 지원
- 0212 2월 상임위원회 개최
- 0221 북한 전염병치료제 1차 지원 - 의약품 13종
- 0222 제29차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6자회담과 남북관계
- 0227 2007년 제1차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북한사회주의의 현재와 미래 : 북한체제의 내구력 중심으로
- 0228 제57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3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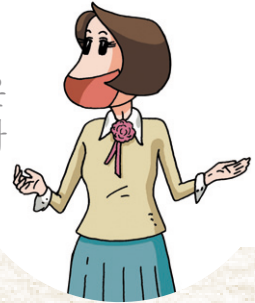
- 0303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알약공장 기술진 방북 (3명)
- 0312 개성 개풍군 양묘장 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12명)
- 0313 농업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0313 제2차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협력 : 평가와 대안 모색
- 0315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대표단 방북 (4명)
- 0320 보건의료협력위원회 준비모임 개최
- 0321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종자, 비료, 상토 등 물자지원 (1차)

- 0321 러시아 불고그라드에 정부조사단(8명) 방문, 고려인사회 지원방안 협의
- 0323 제30차 정책포럼
○ 주제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적표 - 경제 사회적 효과의 분석
- 0327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개소식 (법률사무소 창신)
- 0327 제3차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 0328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7명)
- 0328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기초공사 설비 및 자재지원 (1차)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온천군병원 의로기기 및 소독약 지원

4월 활동

- 0402 <겨레의 숲> 창립대회 (흥사단 강당)
○ 참여단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화협, 평화의숲, 흥사단 등 14개 단체
- 0403 러시아 불고그라드에 비닐하우스 설치 물자 지원
- 0404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비료, 농약 등 물자지원 (2차)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알약공장 제약설비 부품 지원
- 0409 북한 전염병치료제 2차 지원 - 수액제, 항생제 등
평북 동림중등학교(고아원) 밀가루 5톤 급식자재 지원
- 0410 제4차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
- 0411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경운기, 트랙터, 농자재 등 물자지원 (3차)
- 0412 4월 상임위원회 개최
- 0413 AVP(폭력대응 대안모델) 공개강연 공동주최
○ 주제 : 변혁시키는 힘
- 0414-15 AVP(폭력대응 대안모델) 공동워크숍 개최
- 0416 인재양성센터 3D 전문가 전반기 과정 개강 (12주교육/31명)
- 0418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신축 자재, 구강수술장 개보수자재 지원
평남 온천군병원 의로기기 지원 (2차)
- 0424 제5차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6.15 공동선언 2항과 '과정으로서의 통일' 로드맵
- 0424 개성 영통사 방문사업 협의 대표단 방북 (7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입니다



- 0426 제31차 정책포럼
○ 주제 : 2.13 합의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막전막후
- 0428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12명)
- 0428 인재양성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0429 평남 온천군병원 개보수 자재, 비품 지원

5월 활동

- 0503 개성 영통사 방문사업 협의 대표단 방북 (7명)
- 0509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도정공장, 주택보수 물자 지원 (4차)
- 0510 평양 강남군 당곡리 주택보수물자 지원 (5차)
- 0516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및 구강수술장, 온천군병원 기술진 방북 (6명)
- 0516 개성 영통사 방문사업 협의 대표단 방북 (7명)
- 0519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12명)
- 0522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기술진 방북 (4명)
- 0523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농기계 유지보수 부품지원 (6차)
- 0523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6명)
- 0524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회의참석
○ 주제 : 민간 6자회담 / 장소 : 몽고 울란바토르
- 0528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 제정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주제 : 대북지원사업의 사례와 교훈 - 현장에서 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 0530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모내기 대표단 방북 (29명)

6월 활동

- 0601-02 2단계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아카데미하우스)
○ 주제 :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 0608 대한불교천태종과 공동으로 개성 영통사 1차 성자순례 방문 (570명)
- 0613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신속주택 물자 지원 (7차)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지원 (2차)
- 0616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멸균기 2세트 지원
- 0618 개성 영통사 2차 성자순례 방문 (735명)

- 0620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청사 비품 및 종합수술장 물자지원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개보수자재 지원
- 0620 6월 상임위원회 개최
- 0620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4명)
- 0623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3명)
- 0623 개성 영통사 3차 성자순례 방문 (1,009명)
- 0627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지원 (3차)
- 0629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주제 : 우리에게 북한이란 어떤 존재인가 : 서로주체성의 이념에서 본 남북관계와 소통의 방법

7월 활동

- 0704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공사자재 지원 (1차)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도정공장 승압기 및 정비 부품 지원 (8차)
- 0706 농업기술진 러시아 불고그라드 방문, 비날온실 설치작업 진행 (15일간)
- 0711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농기계 유지보수 부품 및 건설자재 지원 (9차)
- 0711 평화나눔센터 남북관계 쟁점진단 1차 라운드테이블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주제 : 남북정상회담의 흥행과 기대효과
- 0711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지원 (4차)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제약설비 및 비품 지원
- 0711 인재양성센터 3D 전문가 후반기 과정 개강 (8주교육/30명)
- 0713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 토론회
○ 주제 : 갈등해결프로그램의 개발경험과 운영에 대한 평가
- 0714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병동 기술진 방북 (7명)
- 0714 긴급점검 라운드테이블 (국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후속조치
- 0718 개성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트랙터, 트럭 등 물자 개성육로지원 (1차)
- 0718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트랙터, 굴삭기, 온실자재 등 물자지원 (10차)
- 0718 개성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대표단 방북 (11명)
- 0718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3명)

2007 활동일지

- 0719 제58차 공동대표회의의 겸 창립11주년 기념행사 (세종문화회관)
- 0720 남북축산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10명)
- 0721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3명)
- 0724 '아시아 공식 개발원조(ODA) 아젠다 형성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 0725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진료소, 탁아소용 간설자재 물자지원(11차)
- 0726 개성 영통사 4차 성지순례 방문 (241명)
- 0731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특별협의지위 NGO로 최종 승인됨

8월 활동

- 0802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추가자재 지원
- 0804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제약설비 설치 기술진 방북 (4명)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8명)
- 0807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9명)
- 0811 개성 영통사 5차 성지순례 방문 (318명)
- 0816 북한 수재지원 긴급모금운동 시작
- 0818 제6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재 개최
○ 장소 : 러시아 볼고그라드주 브이코프시 중앙공원
- 0818 개성 영통사 6차 성지순례 방문 (237명)
- 0818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내부설비 추가자재 지원 (5차)
- 0820 평양 순안중축장(돼지중축장) 사료 60톤 지원 (하림 지원)
- 0822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5명)
- 0824 북한 수재지원물자 1차 지원 - 라면 4,200박스
- 0824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농기계, 온실자재 등 물자지원 (12차)
- 0825 개성 영통사 7차 성지순례 방문 (557명)
- 0825 북한 수재지원물자 2차 지원 - 밀가루 3,800포대
- 0828 북한 수재지원물자 3차 지원 - 생필품, 복구 자재 등
○ 대표단 개성방문 : 신필균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용선 총장 등 4명
- 0828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건설자재 지원 (13차)
- 0829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책, 걸상 등 교육기자재 지원 (14차)
- 0829 대북 영유아지원사업 주관단체 실무대표단 방북
○ 참여단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9월 활동

- 0905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수술기기 및 도구 지원
- 0911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 대표단 방북 (28명)
- 0912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울타리, 창고자재 등 물자지원 (6차)
- 0912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6명)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방북 (9명)
- 0912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교사 1인 파견
- 0913 개성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대표단 개성방문 (15명)
- 0913 북한 수재지원물자 4차 지원 - 의류, 의약품, 복구자재 등
○ 대표단 개성방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산시 등 지원단체 대표 6명
- 0914 북한 수재지원물자 5차 지원 - 시멘트, 경유 등
○ 대표단 개성방문 : 이영동 공동대표, 토지공사 임원 등 6명
- 0917 개성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기술진 방북 (6명)
인재양성센터 3D 전문가 과정 수강, 강습단 평양 복귀
- 0918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 (대회일식)
○ 주제 : 설문조사 분석 및 공동행동규범(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 목차
- 0919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소하구 및 탁아소 놀이시설, 교육기자재 지원 (15차)
평양 순안중축장(돼지중축장) 사료 60톤 지원 (하림 지원)
- 0920 북한 수재지원물자 6차 지원 - 의류, 의약품, 페인트 등
○ 대표단 개성방문 : 7명
- 0920 평북 룡천군육아원(교아원)과 영주군양생원(장애인시설)에 급식자재 지원

10월 활동

- 1002 10월 상임위원회 개최
- 1004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국제학술회의 공동주최
○ 주제 : 고려인 강제이주 70년의 디아스포라
- 1005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물자 지원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온실자재 물자지원 (7차)
- 1009 평북 신의주육아원·애육원(교아원)에 급식자재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제2차 라운드테이블

○ 주제 :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방안

1011 북한 수재지원물자 7차 지원 - 신발, 이불, 의류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 및 시멘트, 밀가루, 식료품 등

○ 대표단 개성방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임원 등 12명

1011 제32차 월례 정책포럼

○ 주제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과 대북 개발지원의 새로운 모색

1011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설치 기술진 방북 (2명)

1012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종돈돼지 254두, 사료 30톤, 동물약품, 각종 사양기자재 등 물자 개성육로 지원(8차), 인도요원 및 기술진 방북 (10명)

1013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10명)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구강병동·이비두경부외과 기술진 방북 (12명)

1015 인재양성센터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개강(10주교육/20명)

1017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구강병동·이비두경부외과 기술진 방북 (7명)

1019 제59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1020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벼베기 대표단 방북 (28명)

1023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 대표단 직항 방북 (101명)

1025 개성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기술진 방북 (9명)

1026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차 전문가토론회

○ 주제 : 남북통합 및 갈등해결 이론과 시민교육 방법론

1027 북한 수재지원물자 8차 지원 - 페인트 23톤

○ 대표단 개성방문 : 산재관리원, 한살림, 강동군중식업연합회 임원 등 13명

1030 북한 수재지원물자 9차 지원 - 의류, 페인트 등

○ 대표단 개성방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임원 등 6명

1031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기술진 방북 (3명)

11월 활동

1102 북한수재물자 10차지원 - 페인트 30톤, 복구자재 등

1103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방북(82명)

1103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전기설비 및 의약품 지원
평양 순안중축장(돼지 종축장) 사료 지원

1113 개성 개풍군 양묘장 기술진 방북 (10명)

1114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건설기술진 방북 (10명)

1115 북한 청각장애인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방북 (5명)

1116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진료소 및 탁아소 건설물자 지원 (16차)

1124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건설기술진 방북 (5명)

1124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9차)

1126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대회 (부산일보 강당)

1127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과 함께 하는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의 밤
○ 장소 : 여의도 한국전력빌딩 강당

1129-1201 평화활동가 대회 참가 (월불교 수련원)

12월 활동

1206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로기기 지원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물자 지원

1207 개성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잣나무 종자 등 물자 지원, 기술진 방북 (5명)

1207 평양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 종자(잣나무) 및 농자재 지원

1208 러시아 불고그라드 고려인동포 7명 시설농업기술연수 입학

1211 북한 구강분야 사업협의를 위한 개성방문 (5명)

1212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2차 방북 (8명)

1215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및 정성의학종합센터 기술진 방북 (6명)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 방북 (4명)

1221 평북 룡천군육아원, 염주군양생원, 동림중등학교원, 식주군이부모학원 등 겨울 의복 지원

1228 평북 룡천군육아원, 염주군양생원, 동림중등학교원, 식주군이부모학원 등 급식 자재 지원

농촌현대화 사업



당곡리 도정공장에서 도정된 쌀과 북측작업원

추진배경 및 경과

대북농업지원사업은 긴급구호차원의 단순 식량지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북한의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국산 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지원을 비롯하여 3개지역(평양 사동구역, 평남 대동군, 황남 신천군)에 농기계수리소를 건설하였고 2004년 7월에는 평안남도 강서군에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북한 조선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양 룡성구역에 3ha 규모의 벼농사 시범재배를 진행하여 북측의 재래농법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2006년부터 평양시 강남구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북측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자원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교섭력과 사업경험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촌현대화사업은 북 협동농장에서 벼농사, 채소농사의 공동재배와 농업기반조성, 공공시설, 주민주택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영농협력을 넘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는 농촌현대화사업은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남측은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과 시공 관리 등은 북측이 책임지는 공동협력 방식입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벼농사 공동재배는 200ha로 확대되었습니다. 북측은 2006년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협동농장 내 벼농사 경지면적 400ha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남측에서 점진적인 확대인 200ha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측 이양농법의 효과를 확인한 북측은 남측이 기술지원한 보온절충못자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협동농장 400ha를 모두 남측 이양농법을 적용하여 모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닐하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농장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0년부터 긴급구호차원의 단순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농자재 및 국산 농기계의 지원과 북한 현지 농기계 조립 공장 건설 등 다양한 선구적 실험을 통해 북한의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당곡리 탁아소에 설치된 미끄럼틀



주민주택을 신축중인 당곡리



당곡리협동농장 보은 절충못자리

우스 채소농사는 대도시 주변의 지역적 이점을 고려하여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등을 주로 재배하였는데 주민들의 기술도 향상되어 상당한 수확을 기대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북한에 내린 집중호우로 벼농사 재배 지역의 40%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로 10a당 352kg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벼수확량이 전년대비 약 30% 정도 감소하였으며 3,600평 규모에서 진행되던 채소 농사 전체가 유실되었습니다.

벼농사 및 채소 재배 사업 분야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 조성 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사업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수리센터를 건립하여 남측에서 지원한 농기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2,000톤의 벼를 도정할 수 있는 도정공장과 330평방미터 규모의 곡물보관창고를 완공하여 품질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는 소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농촌 주택 59채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진료소, 탁아소는 200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북측 주민들이 맘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북측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벼 육묘생산 확대와 이양농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보은절충못자리를 활용한 벼 육묘 생산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북측은 자체적으로 남측이 제공한 200ha분 육묘 자재를 2회전 하는 방식으로 400ha에 이양기를 이용한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측의 육묘상토 생산기술을 받아들여 상토를 자체

적으로 조달하였으며 북측 주민들의 남측 농기계에 대한 정비기술이 향상되는 등 남측 이양농법을 북 협동농장 주민들이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채소농사는 북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 습득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확을 목전에 두고 수해피해를 당해 상심이 컸지만 앞으로 대도시 주변이라는 이점이 있기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2007년 2년차 농촌현대화사업은 농업생산기술과 농업기반 여건을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하나씩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1회성 단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농촌현대화사업 방북내역

	일자	내용	인원
1	2월 10일	2007년농촌현대화사업 협의	4
2	3월 28일	유치원, 소학교 보수 기술진	7
3	4월 28일	보은절충못자리 기술지원 기술진	12
4	5월 23일	비닐하우스 육묘외 관리, 진료소 건축 기술진	6
5	5월 30일	모내기 대표단	29
6	6월 20일	채소생육관리, 벼생육조사, 탁아소 건축 기술진	4
7	7월 11일	벼농사 병충해관리 기술진	3
8	8월 7일	벼 생육관리 및 진료소, 탁아소 건축 기술진	9
9	9월 12일	수해피해 현화파악, 진료소, 탁아소 건축 기술진	9
10	10월 20일	벼베기 대표단	28
11	11월 14일	진료소, 탁아소 전기 설비 기술진	10
12	11월 24일	농기계수리소 건립 기술진	5
13	12월 12일	농기계수리소 건립 완공 대표단	8
총 13회			134

축산협력 사업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돈사 내부

추진배경 및 경과

축산협력사업은 식량증산과 더불어 우리의 우수한 축산종자 지원을 통해 북한의 종축개량, 축산에 대한 북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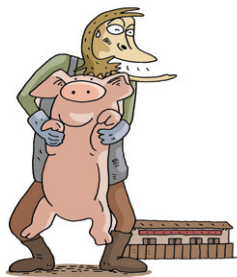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돼지목장 1반에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 3일, 남측 전북 14개 시·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지만 2번에 걸친 북측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0월 11일, 1차 건설자재를 지원하고 대표단 및 기술진 8명이 10월 18일부터 현지 방문 예정이었으나,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물자지원 및 방북이 전면 유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2007년 3월 21일,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의 건설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돼지목장 1동에 위치한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은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총 21,180㎡ 부지에 번식, 분만, 육성돈사 및 관리동을 건설하였습니다. 연간 총 1000마리 100톤의 육성돈(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돼지)을 길러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에는 330㎡규모의 축분처리장과 상주인원 15명이 생활할 수 있는 관리동, 자동감지 및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된 소독시설, 그리고 사료창고, 양수장, 변전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축분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발효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축분발효장 1개동과, 이렇게 생산된 유기질 축분비료를 활용하여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총 2,800㎡ 규모의 남새온실(비닐하우스) 8동도 함께 건설함으로써 농업과 축산을 병행하는 순환구조의 농축산 기지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은 2007년 5월, 12명의 대표단 방북 이후 7차에 걸쳐 남측의 건설 및 양돈 관리 기술진이 방북, 6개월여



남한에서 보낸 돼지, 든실히 자라 동포들의 밥상에 오릅니다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 개성이라는 단순한 식량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우수한 축산종자 지원을 통한 북한의 종축개량과 축산에 대한 북한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10월 24일 남포 현지에서 남측 인원 101명을 포함해 150여명의 남북한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7년 2월, 농기계 1차 지원(분무기 100대,

파종기 5대 등)을 시작으로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건설을 위한 건설자재 등을 8차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양돈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차에 걸쳐 사료 15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주민과 탁아소, 유치원 등 특히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번식·분만·육성 돈사와 관리동

또한 양돈장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축분처리장을 활용, 유기질 비료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축산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양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양돈장의 운영 정착시기까지 향후 1년간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2008년에도 3월 말경 현지 방북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방문하면서 남측의 선진 관리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별 사업 단위사업으로서의 축산협력사업을 농업과 연계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한 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축산협력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축산을 통해 발생한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해 농업부문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이모작 농사를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농축산 지원사업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축산협력사업 방북내역

	일자	내용	인원
1	5월 19일	양돈장 부지, 기초공사, 설계확정 협의	12
2	6월 23일	기초 골조 공사 진행 기술진	3
3	7월 21일	돈사, 관리동 판넬 작업 기술진	3
4	8월 22일	돈사, 관리동 내부 설비 전기작업 기술진	8
5	8월 22일	소독시설, 돈사 내부설비 마무리작업 기술진	5
6	9월 12일	돈사 내부설비 점검, 돼지 관리기술 이전 기술진	6
7	10월 13일	남측 돼지 현장 도착 확인, 관리상태 점검 기술진	10
8	10월 23일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 대표단	101
9	12월 15일	돼지 발육 관리상태 점검 사육 기술지원 기술진	4
총 9회			152

산림분야 협력사업

북녘땅 나무심기로 온겨레가 푸르게 푸르게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다량벌로 개간하거나 연료용으로 나무를 베어 내어, 해마다 흉수로 농경지가 침식되고 주민시설이 파괴되는 등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는 문제는 환경복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및 계획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범국민적 차원의 북한 나무심기운동을 제안하고 2007년 4월 2일 <겨레의 숲>창립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함께 개성과 개성 인근지역 산림협력사업을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향후 5년간 9ha 규모의 개풍양묘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묘장 조성은 북한의 양묘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자립적인 산림복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7년 7월에 양묘장 조성을 위한 1차 물자를 지원하였고 10월에는 300평 규모의 양묘생산 비닐하우스를 완공하였으며 2008년 3월까지 양묘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약공장 지원사업



정성수액약품공장 수액제 생산모습

추진배경 및 경과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의약품 공급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제약공장에서 다양한 약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보통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의약품시험기준집) 규격에 따라 20~30종의 약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측은 이처럼 열악한 기초의약품 수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액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요청 해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북한의 기초의약품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액약품 생산공장을 평양에 건설키로 했습니다.

2003년 3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및 정성제약연구소와 합의를 체결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제기아대책기구나 공동으로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2003년과 2004년 총 12회에 걸쳐 68명의 대표단 및 기술진이 방북했고 중국측 공사인원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현지에서 상주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류

독감(SARS)의 확산과 돌발적인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공사 일정이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북측 민화협과 정성제약연구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액약품공장 건설만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측 기술진의 방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성수액약품공장 준공식이 2005년 6월 9일 평양 현지에서 거행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준공식 참석을 위해 140명의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성제약연구소의 기존 알약품공장을 GMP 규정에 따라 개보수하고 현대적 생산설비와 포장 설비를 추가 지원해 2006년 2월 알약품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수액약품공장 및 알약품공장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물자와 원료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제약설비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성제약연구소와 남쪽 기업과의 경험을 연계, 제약공장의 원료공급에 힘을 보탰으며 2006년 말 정성제약연구소는 정성의 학종합센터로 기관의 위상이 격상했습니다.



희망이 싹트는 알약공장, 동포를 향한 사랑과 나눔이 있습니다

기초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측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현대적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약품제조기준) 규정에 맞는 제약공장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북측의 보건의로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성알약품공장 알약품 건조모습



출고를 기다리는 수액약품



품질관리실 냉난방기 설치중인 남북기술자

2007년도 사업내용 : 종합품질관리실 설치

정성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 등 기본적인 제약 설비를 지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두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여기서 생산된 약품의 품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정성의학종합센터 내에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 자재와 비품, 품질관리 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억5,000만원의 자금이 투입됐으며 총 5차례 13명의 기술진이 정성의학종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서 특히 강조됐던 부분은 정성의학종합센터 성원에 대한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품질관리실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약 2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성측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GMP를 중심으로 한 기술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2005년 6월에 준공된 정성수액약품공장은 북한 최초의 GMP 제약 공장으로, 정성수액약품공장 준공을 계기로 이 공장의 설비시스템과 위생 관리시스템, 운영방식, 교육과정 등이 북한 내 GMP 제도화 작업의 모태가 됐습니다. 이는 현대적 방식의 기초 수액제제의 대량 생산체계를 도입하여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북측의 보건의로 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 품질관리실 설치에 이어 현재의 정성의학종합센터를 향후 종합적인 제약 기업소

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북한 내의 타 지역에 제2 수액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북쪽내 의약품제조공장 지원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약공장지원사업 방북내역

	일자	내용	인원
1	3월 3일	정성알약품공장 승강기 설치 기술진 방북	3
2	5월 22일	품질관리실 설계 및 기기 관련 협의	4
3	7월 14일	수액 및 알약품공장 유지보수 관련 협의	2
4	10월 11일	품질관리실 설계 확정 및 공사 일정 협의	2
5	12월 15일	품질관리실 공사 진행확인 및 일정협의	2
총 5회			13



병원현대화 사업



신경외과 병동 3층에 있는 종합수술장

추진배경 및 경과

병원현대화사업은 2003년 북한이 조선적십자 종합병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요청하고 2004년 1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이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에 위치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총 8만평 방미터로 병상 1,000개, 하루 외래환자 2,000명, 의사와 보장성원 등 직원이 총 2,000여명에 달하는 북 최대의 종합병원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본관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외과 병동부터 현대화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03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신경외과 병동의 개보수를 위해 페인트와 출입문, 환자용 침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병동 1층에 CT실을 꾸리고 3층에는 종합수술장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적십자병원 내에 약무병동을 신축하는 한편 구강전문병원 수술장, 회복치료과 등의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12월 서해 직항로를 통해 90여명의 대표단이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외과 병

동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남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2005년도에 착수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페인트와 문짝, 창틀 등을 지원하는 한편 2007년 초에는 구급차도 제공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 약무병동 및 구강전문병원 수술장 준공

2007년도에는 적십자종합병원 내에 약무병동이 준공되고 구강수술장이 개보수되었습니다. 약무병동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필요한 약품을 조제하는 한편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의료 기기들을 살균 소독하는 곳입니다. 적십자병원은 북의 보건의료당국에서 약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 양은 필요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적십자병원에서는 자체 약품공급기지를 두고 한약재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양약을 만드는 원료약품 일부도 자체 조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약무병동에 증류수 제조기와 멸균기 타정기 등을 설치하고 기술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웃음이 피어나는 병원, 오래된 남북의 아픔까지 치료되길...

북한의 각급 병원들은 의료시설과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진단 및 치료활동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기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전경도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식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평양의학과학도론회

구강전문병원 9층에 있는 구강수술장 개보수사업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하수 배관 작업과 전기 공사, 수술장 내부 인테리어에 이어 수술대와 마취기, 기본적인 의료 기기들이 제공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작업을 비롯, 병원현대화사업을 위해 총 11회, 150명의 인원이 북한을 방문해 설비를 설치하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1월 3일, 82명의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로 병원 현장을 방문해 4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북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보건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북쪽의 보건의료 현실과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적십자병원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대화된 구강수술장에서는 남·북 치과의사들이 북쪽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보철실과 교정실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현대화를 계기로 북쪽의 청각장애인 지원사업도 시작합니다. 귀걸이형 및 귓속형 보청기 지원을 시작으로, 인공와우 기술을 통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를 돌려주고,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지원의 환경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 병원현대화사업 반복내역

	일자	내용	인원
1	3월 15일	적십자 약무병동 대표단	4
2	5월 16일	적십자 구강수술장 및 온천군병원 기술진	6
3	7월 14일	적십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기술진	6
4	8월 4일	적십자 약무병동 기술진	4
5	9월 11일	제9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가단	28
6	10월 17일	적십자 이비-두경부외과 대표단	7
7	10월 31일	적십자 약무병동 및 종합수술장 기술진	3
8	11월 3일	적십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82
9	11월 15일	적십자 이비-두경부외과 및 장애지원사업 대표단	4
10	12월 11일	적십자 구강전문병원 협력사업 대표단	5
11	12월 15일	적십자 약무병동 기술진 방북	1
총 11회		개성 1회, 평양 10회	150

남북의료인 교류협력사업

제9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석

지난 2007년 9월 12일(수)~14일(금)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제9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가 열렸습니다. 평양의학과학도론회는 국내외 동포 의학자들이 참석, 조선민족의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9년 5월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로, 당초 해외동포 의료인들과 북쪽의 의사들로만 이뤄지다가 지난 2003년부터 남쪽 의료진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4년, 2006년, 2007년에 남쪽 의료진들의 토론회 참석이 이뤄져 남쪽에서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평양의학과학도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린이급식 사업



환하게 웃는 신의주육아원 아이들

추진배경 및 경과

남이든 북이든 지금 어린이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 아이들의 몸엔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경지역엔 북한 당국의 배급이나 외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고아, 장애인, 노인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7세미만 아동의 만성영양장애는 1998년 62%에서 2004년 37%로 낮아졌으며, 저체중도 23.4%로 90년대 보다 영양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중증 만성영양장애 12.2%, 반복되는 수재로 인한 식량사정과 들쭉날쭉한 식량 지원 등으로 여전히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곳, 외부의 식량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 취약계층에게 2001년 7월부터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평양 만경대구역과 사리원시, 정주시 유치원과 탁아소 4만명의 어린이에게 약 4억원 가량의 급식 지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남포, 혜산, 회령 등의 어린이에게 약 18억 상당의 분유와 국수, 양념스프,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2004년 4월 발생한 평안북도 룡천폭발사건 지원을 계기로 2005년 8월부터 평안북도의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 6곳, 1,500여명과 결연하여 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번호	대상	현황	비고
1	룡천군육아원	1~4살, 420명	고아원
2	신의주육아원	1~4살, 220명	고아원
3	신의주애육원	5~7살, 130명	고아원
4	동림중등학교	7~16살, 470명	고아원
5	식주군이부모학원	7~16살, 123명	부모 양육능력 부재 아이들
6	염주군양생원	120명	의지할 데 없는 장애인



아이들의 미래는 남북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비해 북한 아이들의 신장은 평균 27cm 작고, 체중은 10kg 적게 나갑니다. 북한 어린이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의 장래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제임스 모리스



제법 익정한 동림중등학교원 아이들



밖으로 나와 맞이하는 신의주육아원 아이들



염주군양생원에 지원되는 급식물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속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원, 애육원 등과 결연을 맺고 밀가루, 분유, 설탕, 콩기름 등 급식 물자를 중국 심양과 단둥서 구입, 신의주를 통해 평안북도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2007년 북한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은 6곳의 시설에 총 5차례, 4,400만원 상당의 밀가루 53톤, 콩기름 37톤 등을 지원하였고, 전염병 치료약 등 의약품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하는 곳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힘든 변경 지역에 있는 곳으로 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 물자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트럭을 지원, 이렇게 지속적인 급식지원으로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무표정이었던 아이들이 생기를 찾고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이 회복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옷가지도 지원했습니다.

현재 급식지원은 2004년 룡천폭발사건 당시 룡천탁아소를 지원했던 익산시민들이 주축으로 모인 모임, 한국생협연합회, (주)고려정보통신, 복지단체 너머 등이 육아원과 결연하여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자

구분	지원내역
급식	밀가루, 분유, 설탕, 찹쌀미시가루, 콩기름, 과자, 사탕
생필품	내의, 점퍼, 신발, 양말, 장갑, 5트럭

사업성과 및 계획

2008년부터는 양강도 해산 등 변경지역의 유아원도 자매결연하여 어린이급식지원을 추가 할 계획이며, 단체와 지방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 많은 분들이 “하루 200원, 북한어린이 1일 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겨울옷을 받고 좋아하는 룡천군육아원 아이들

IT교육 사업



북한의 우수한 IT인력 양성,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추진배경 및 경과

북한의 IT 분야에서 가장 큰 자산은 지속적으로 양성한 우수한 인력입니다. 산업분야도 국제적인 제약이 많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인공지능, 음성인식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남한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 및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수한 양질의 인력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IT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양성된 인력은 북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습득한 기술을 전파하며 향후 북한 IT 산업 전반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의 업체에 고용되어 외화를 획득하는 고부가가치 인력산업으로 북의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재양성센터는 하나비즈닷컴에서 2001년부터 진행해온 인력양성사업을 이어받아 2006년 5월부터 중국단둥에 교육원을 설치, 교육 전반의 관리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진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 교육기간 : 2007년 10월15일 ~ 12월28일 (10주 과정)
- 교육인원 : 20명
- 교육내용 :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등 가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휴대폰, MP3, PMP, 디지털 TV 등을 구동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MDS Tech(주)와의 교육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1차 '3D 그래픽 전문가 과정'

- 교육기간 : 2007년 4월 13일 ~ 9월 15일 (20주 과정)
- 교육인원 : 31명
- 교육내용 : 대학 미술 전공 및 컴퓨터 그래픽 관련 업무에 있는 학생, 연구원, 디자이너 대상 최신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진은 국내 교수진과 유수의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특수효과 등의 회사들과 연계하여 실무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발전 가능성

사업성과 및 계획

2007년 인재양성센터의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3D 그래픽, 임베디드라는 분야를 선정하고 기존의 국내 대학 교수진, 연구원에서 분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업계와 연계하여 실무진(대표 이사 및 팀장급)을 선정하여 편성했습니다.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을 전수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목적과 향후 배출된 교육생이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했습니다. 2007년 교육에 약 10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 업체가 직접 북한 인력에 대한 수준, 능력, 가능성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발전 가능성

annual report 2007

긴급구호 사업



전염병 확산 및 수재피해, 동포를 향한 나눔이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성홍열, 홍역 등 북한 전염병 치료약 3천만원 상당 전달



2007년 연초 1월, 함경북도 청진에 성홍열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사(IFRC) 등 국제기구에 의해 공식 확

인되었고 IFRC는 2월, 겨울 동안에 북한 전역의 30개군 지역에서 약 3,000명의 주민들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당시까지 모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약 3천만원 상당의 아목시실린류의 항생제와 해열제 등 의약품을 2월 21일 부산항 제3부두에서 의약품 출항식을 갖고 함경북도 라진항을 통해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전염병 치료제 성금 및 물자지원내역

차수	일자	지원경로	내용
1차	2월 21일	부산-라진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13종
2차	4월 9일	단동-신의주	수액제, 항생제, 해열진통제, 비타민제 등 의약품 8종
수해성금 및 물품 기탁액			30,559,490원

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수재피해상황을 파악 후 2007년 8월 16일부터 긴급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8월 24일, 1차 수재피해 복구 물자지원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총 2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재피해 성금 및 물자지원내역

차수	일자	지원경로	내용
1차	8/24	남포해로	라면 4,200박스
2차	8/25	개성육로	밀가루 3,800포대(20kg)
3차	8/28	개성육로	생필품 19,608세트, 삽 15,000개, 장화 2,000켤레, 장갑 20,000켤레, 통조림 17,304개, 라면 4,000박스, 의류 2,300점
4차	9/13	개성육로	철손수레 1,200대, 의류, 의약품 등
5차	9/14	개성육로	시멘트 873.5톤(40kg, 21,837포), 경유 73,860리터
6차	9/20	개성육로	페인트 9.6톤, 의류 82,000점, 의약품 20종 등
7차	10/11	개성육로	시멘트 360톤, 밀가루 80톤, 의류, 신발 등
8차	10/27	개성육로	페인트 23톤
9차	10/30	개성육로	의류 14,500벌, 페인트 15톤 등
10차	11/2	남포해로	페인트 30톤, 건설자재
수해성금기탁액			855,258,590원
물품 기탁액			1,967,414,066원
총 지원액			2,882,672,656원

40년만의 수재피해, 총10차에 걸쳐 28억원 상당의 물자 전달



2007년 8월 7일부터 10여 일간, 북한지역에 내린 비는 1967년 평양대홍수 이래 4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이례적



“나라의 중요 철길과 도로, 다리들이 끊어지고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통신망이 좌절되는 등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다”
- 조선중앙통신 보도 중에서 (2007. 8. 12)

으로 피해상황을 신속히 전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구호의 손

정책연구 사업



7월 11일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추진배경 및 경과

대북지원이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발전되고 남북관계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정책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대북지원 정책의 개발,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갈등해결 방안 연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심화된 정책 활동과 연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정책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남북관계 전문가 및 일반인을 상대로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포럼,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회를 7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채널 및 길라잡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북한채널(www.nkchannel.org)과 길라잡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채널의 '이슈와 오피니언'은 북한관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인권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칼럼으로 매주 화요일에 약 6천 여명에게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사업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맞는 갈등해결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평화중재자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 제정 사업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협력기금 지원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 단체들의 윤리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북한협 공동행동규범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총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설문조사 및 분석, 4차례의 제정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쳐 대북지원공동행동규범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2005년부터 동북아 NGO 네트워크 3개년 연구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2007년에는 동북아 지역 내 NGO 네트워크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12월 말 통일연구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2007년 NGO·전문가 집중토론 향후 10년의 남북관계의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초점으로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해온 시민사회의 역할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중토론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화교육-폭력대응 대안모델(AVP) 강연 및 워크숍 개최 외국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적응 및 국내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였고, 폭력대응 대안모델(AVP) 공개 강연(4월 3일) 및 워크숍(4월 14일-15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싱크탱크로 남북통합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사업과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 연대사업 및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평화활동가 워크숍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개 평화 단체의 13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평화활동가 워크숍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준비위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 취득 2007년 7월에 개최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특별협의지위 NGO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국제회의의 참석 및 면담 진행 한국의 민간대북지원 단체의 활동에 대해 알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한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대사관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담당자들과 여러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다양한 포럼,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공동 인식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NGO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토론회 및 포럼의 진행과 더불어 2007년에 준비한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에 개발의 연속 사업으로 남북관계 이슈에 대한 시민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한 '남북통합 갈등해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화단체들과의 연대하여 우리사회에 새로운 방식의 평화교육 도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한국주재 대사관, 유엔기구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07년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및 토론회 내용

구분	일정	내용
정책포럼	2월 22일	6자회담과 남북관계
	3월 23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적표 - 경제 사회적 효과의 분석
	4월 26일	2.13 합의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막전막후 - 변화의 방향과 동태를 중심으로
	10월 11일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동향과 대북 개발지원의 새로운 모색
라운드테이블	7월 11일	남북정상회담의 향방과 기대효과
	7월 14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후속조치
	10월 19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방안
남북통합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을위한 토론회	6월 29일	우리에게 북한이란 어떤 존재인가 : 서로주체성의 이념에서 본 남북관계와 소통의 방법
	7월 13일	갈등해결프로그램의 개발경험과 운영에 대한 평가
	10월 26일	남북통합 및 갈등해결 이론과 시민교육 방법론
	12월 18일	남북통합의 전망과 갈등해결 프로그램
NGO·전문가 집중토론	2월 27일	북한사회주의의 현재와 미래 : 북한체제의 내구력 중심으로
	3월 13일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협력 : 평가와 대안모색
	3월 27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 북한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4월 10일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4월 24일	6.15 공동선언 2회과 '과정으로서의 통일' 로드맵
	6월 1-2일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고려인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볼고그라드에는 약 3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농토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비싼 토지 임대료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이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과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제 6회 고려인축제 2001년부터 시작된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는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축제로 타민족과의 교류, 화합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고려인 동포들과 현지 주민들이 모여 여섯 번째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제이주 70주년의 의미를 더해 모스크바 총영사, 주정

부, 러시아 국회의원, 라스토프 교육원, 타민족 대표 등 한국방문단 내외빈과 고려인 동포 1,500여명이 참가하여 민속공연, 각종 운동경기, 전통놀이, 농산물 품평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글 및 문화교실 운영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한글·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7년 3월 마리노프카, 솔로두쉬노, 볼스키시에 한글교실을 개설하고 한글교재 300권을 배포하였으며, 5월에는 교육자재 구입과 라스토프 한국어교육원 교육연수 진행 그리고 한국어 교사 파견으로 주 4회, 12시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겨레” 예술단을 구성하여, 우리 춤, 노래 등을 배우고 알릴 수 있도록 지도 선생을 두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농업지원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2ha 시설영농단지



볼고그라드 고려인의 아픔, 우리가 보듬어 줍니다

러시아 남부의 볼가강 하류와 돈 강 중류지역에 위치한 볼고그라드는 구 소련 붕괴 후 실질적으로 재이주 정착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의 고려인들은 러시아 고려인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지도



볼고그라드 지역축제



고려인가족

를 조성하여 비닐하우스 자재 등을 지원, 고려인들에게 선진 시설영농 교육장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시설영농 교육을 통하여 '농업지도사'를 양성하여 고려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농업대학과 시설농업 교육을 공동 진행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7월에는 시설영농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기술진의 현장방문과 비닐하우스 설치 및 설치법 전수, 12ha 토지에 비닐하우스 3동과 3연동 육묘장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7명의 시설영농교육 연수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50일간의 교육을 연수하였고, 2008년 2월에 한국 농업전문가들이 러시아 현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생활·의료지원사업 독거노인 및 생활곤란자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고려인 밀집 농촌마을에 한방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더 많은 고려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조사단 방문 그동안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지역과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재외동포재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의 방문사업을 추진하여 4박 5일간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의 삶의 모습과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조사·홍보활동 국내외 홍보활동을 위해 한·러 언어 사이트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볼고그라드 현지에서는

고려인 관련 특별신문 30,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강제이주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강제이주 루트 탐방을 하였고, 전남대학교와 함께 국내외 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 개최하여 고려인 문제 및 동포디아스포라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도서·유학생 지원 국내에서 기증받은 한글도서 700권을 마을 교실에 지원하여 고려인들의 한글공부 및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볼고그라드의 고려인 학생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여,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려인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학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2007년에는 그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대상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이어가며,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화를 통한 현지 활동의 자활적 운영과 시설영농단지의 현지 교육장 기능 강화, 한글교육의 활성화에 집중하며 한편으로 소외되어있는 고려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홍보 및 모금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려인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정자치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 사업



우리동포' 개소식에서 현판을 들고 있는 박원철 공동대표, 강문규 상임대표, 전성 변호사, 박남수 공동대표 (왼쪽부터)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설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변호사)는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들이 안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목적으로 2007년 3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동포'는 직통 상담전화(02-715-8668)를 개설하고 1차 전화상담 후 2차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상담 후 무료 소송 및 변호를 진행합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2007년 3월 개소 후 월평균 20여건의 상담 및 문의 전화를 받고 단순 정보 확인 문의 등 1차 전화상담에서 문의에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중 25건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통해 상담 및 소송, 변호를 진행 하였습니다.

2007년 법률지원 현황 : 25건 지원

구분	국내사기	다단계	브로커사기	형사	호적정정	의료사고	이혼	단순채무	기타
새터민	2	1	3	2	3	1	2	1	6
재중동포	1								2
재미동포							1		

사업성과 및 계획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의 수가 1만 2천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문화적 차이, 법률적 몰이해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동포'에 걸려온 수 많은 상담전화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의 어려움의 반증일 것입니다. 이중 국군포로 친자확인 및 보훈처리에 관한 지원, 전문 탈북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횡포 및 폭력에 대한 소송, 성추행 혐의에 대한 변호 대리 등은 단순히 새터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동포'의 문은 2008년에도 동포들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annual
report
2007**

2007 결산보고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사업을 결산합니다

수입		지출	
(단위:원)		(단위: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기이월	344,086,749	사업비	8,472,374,493
모금	8,775,069,197	농업축산협력사업비	3,281,173,813
농업축산협력사업	3,555,764,335	보건의료사업비	1,358,688,332
보건의료사업	1,392,363,123	어린이급식사업비	51,690,776
어린이급식사업	85,891,233	긴급구호사업비	2,810,467,544
긴급구호사업	2,822,672,656	고려인지원사업비	226,420,724
고려인지원사업	112,974,084	기타지원사업비	168,678,655
기타지원사업	244,796,023	간접사업비	102,238,576
일반모금	72,329,200	IT교육사업비	473,016,073
IT교육사업	488,278,543	경상비	461,218,910
운영비	414,296,905	기타 (미지급·차입금 반제)	75,547,555
후원금	235,567,483	차기이월	525,175,313
회원회비	178,729,422	합계	9,534,316,271
기타	863,420		
합계	9,534,316,271		

※ 2008년 2월 감사 및 공동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한 2007년 결산보고 내역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 농업축산, 보건의료, 긴급구호 지원은 현물기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업



지역 의료인들과 학생들의 참여 속에 북을 향한 마음이 쑥쑥!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녘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으로 연중 지속 된 '헌 교과서 수집운동'은 지역의 청소년에게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과 남북 청소년들의 교육교류의 의미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북보건의료 협력 사업 및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7년 12월 17일 출범한 '광주전남기독교의료인연합'은 향후 북측의 1차 진료소 현대화 사업과 남북의사 협동진료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북녘어린이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헌 교과서 모이기 운동'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역 50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 헌교과서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교과서용지 35톤(3,000만원 상당)을 2007년 5월 북측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헌 교과서 모이기 운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 1,900만원(2007년 12월 기준)은 향후 '헌 교과서 모이기 운동'의 확대와 북한 소규모 학교 및 유치원 현대화 사업, 교육협력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대학생 금강산 통일연수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북한 바로알기와 통일외식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된 '금강산 통일연수'는 2007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광주 지역 대학생 100명이 참가하

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통일연수'에서는 특히 북측 고성항에서 직접 땅을 밟으며 짧지만 도보행진이 진행되어 참가자 모두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금강산 온정리 온정인민병원 남북 협동진료 전개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안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들과 함께 북측 고성군 온정리 온정인민병원을 방문하여 남북 협동진료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참여한 의사들은 각 과목별로 온정리 주민들을 대상, 진료하였습니다.

'광주전남기독교의료인연합회' 창립대회



대북보건의료 협력사업과 소외계층 의료 봉사활동을 위한 '광주전남기독교의료인연합회'는 2007년 12월 15일,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4층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전남기독교의료인연합회'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에 대한 대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북측의 1차진료소 현대화 사업과 남북의사 협동진료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업



남녘의 손길이 북녘 산간 지방과 오지마을까지 펼쳐집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 개 단체가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든든한 동반자요 소중한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북녘의 사정상 지금까지의 지원은 거의 평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 지역을 벗어나 북녘의 자강도, 함경도 지역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남쪽에서도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이나 오지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의미가 있듯이... 북녘의 농촌과 오지로 지원을 넓히기 결정되었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결성취지문 중〉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결성식



2007년 11월 26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결성되었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 7월 10일, 창립하여 북한 어린이 식량지원 사업을 해온

‘작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가칭)’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펼치기 위해 결성된 대북지원운동단체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지역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북한 태양발전, 풍력발전 시설 등 중장기적인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유치원 탁아소 지원 물품 1차 전달

2008년 1월 21일 함경북도 회령시 유치원 탁아소 1차 지원 물품인 분유, 의류, 공기를 등(시가 500만원상당)을 중국 삼합을 통해 전달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물품은 회령시의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탁아소 3곳에 전달되었으며 2008년 3곳을 중심으로 월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또한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9년에는 10곳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유치원 탁아소 현황

구분	연령	남자	여자	합계
남문유치원	6세	49	43	92
	7세	149	141	190
	소계	198	184	382
탄광기계유치원	6세	67	56	123
	7세	101	88	189
	소계	168	144	312
탄광기계탁아소	1-2세	17	15	32
	3세	15	21	36
	4세	28	24	52
	5세	36	39	75
	소계	96	99	195
합계		462	427	889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교문

김수환 (가톨릭 추기경)
김준근 (C.C.C 명예총재)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서영호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상임대표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공동대표

고희선 (농우바이오 회장)
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성민 (한국대학생교회 대표)
박원철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박준영 (을지대학교 총장)
손충열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안성모 (대한치과 의사협회 회장)

영 담 (불교방송 이사장)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덕홍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윤장현 (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
이상준 (골든브릿지증권 회장)
이영동 (前 대한화재(주) 부회장)
이일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지현 (원불교 여성회장)

분과위원장

북한농업협력위원장 윤여두 공동대표
북한보건의료협력위원장 박준영 공동대표,
이일영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김영수 공동대표
재정위원장 박남수 공동대표
러시아고려인사업위원장 윤덕홍 공동대표
북한신재생에너지협력위원장 손충열 공동대표
교육위원장(인재양성센터) 박찬모 (前포항공대 총장)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감사 박문식 (공인회계사)

운영위원장 이용선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변호사)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국장
서명희 부장
신 호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불철 부장
황재성 간사
현지연 간사
오형윤 간사
라황균 간사
윤남희 간사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교문 안종일, 강신석, 조비오, 염홍섭

상임대표

윤장현 (아이안과 원장)
김혁중 (광주대학교 총장)
광 민 (전 무각사 주지)

운영이사

남북교류협력위원장 정영재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남북보건의료위원장 서정성 (아이안과원장)
조직홍보위원장 김영록

감사 김정민 (세무사)

정책위원장 김영기(전남대 교수)

사무국 김영삼 사무국장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 여 스님 (여여선원장)

공동대표

원형은 (빛과 소금 교회 목사)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사회적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 치과원장)
차상조 (작은이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

자문위원회

김재규 (사회적기업 에너지나투라 상임고문)

최화웅 (부산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여창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 감사)
이진석 (카파코리아 이사)
서석홍 (부경대학교 교수)
박찬성 (효성정보기술교육센터 대표)
이승정 (장산 총일교회 목사)
이상수 (레베산업 대표이사)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이사)
안준노 (국회의원 정책특보)

김현철 (주식회사 다산 대표)
선재스님, 지장스님, 승찬스님, 설곡스님

문화예술위원장 최정완

운영위원회

성우근, 홍태용, 양춘복, 황선희, 백승휘, 정덕용,
임재석, 도관스님

상임이사 리인수

러시아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리 부회장
김갈리나 총무

황슬라브 감사
류정숙 한글학교 교사

시설농업현장사무소

김아피나시, 김제냐 (솔로두시노지역 담당)
설게나, 황바집 (레닌스키지역 담당)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민족과 함께 해주세요!

후원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

2.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휴대폰 후원

신용카드 후원

3. 계좌이체 및 지로 후원

후원계좌

국민 00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외환 028-22-05491-1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예금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로번호

7641271

4. 후원문의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전화 02)734-7070 / 팩스 02)734-8770

www.ksm.or.kr / ksmseoul@ksm.or.kr

더 높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전진하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어려울수록 단결하였습니다.

부족할수록 나누었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서로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 힘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이제 더 큰 모습을 보여 줄 때입니다.

QUALITY MATTERS

동양물산기업(주)은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기계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YM 동양물산기업(주) www.tym.co.kr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0번지 (대우빌딩) TEL : (02)3014-2800
공장 :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9 TEL : (055)279-4400